

[북 스]

어린이 책꽂이



▲난 밥 먹지 않아=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와 밥을 먹이려는 엄마의 신경전을 아이의 상상력으로 유쾌하게 풀어낸 그림책이다. 엄마의 일방적인 밥 먹기 강요에 화가 난 아이가 결국 엄마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 밥을 먹지 않겠다는 아이의 비장한 표정과 결연한 의지가 귀여운 작품이다. <시공주니어·9천500원>



▲싹! 인형들이 가동했어=살아있는 인형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써온 앤 M. 마틴과 로라 고드윈의 신작. '모든 집에는 비밀이 있어'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인형'에 나오는 인형 친구 에너벨과 티파니의 새로운 모험 이야기. 친구인 에너벨과 함께하기로 선택한 티파니는 무작정 집을 나와 길거리로 나선다. <개업니우·1만원>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맑은가람 테마 동화책-평화 이야기’ 시리즈 제5권. 1959년부터 1975년까지 북부 베트남과 남부 베트남 간에 일어난 베트남 전쟁 중에 엄마를 잃고 혼자 남겨진 고아 소녀 ‘킴’의 실화를 담았던 그림책이다. 킴이 전쟁이 준 외로움과 무서움을 떨쳐버리는 모습을 담았다. <맑은가람·9천원>



▲거위의 꿈, 풀 포츠=영국의 스타 발굴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면서 스타가 된 가수 풀 포츠의 인생역정을 통해 어린이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 못생기고 뚱뚱하고 가난한 풀 포츠가 꿈을 잃지 않고 휴대전화 판매원에서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공하는 과정을 감동 깊게 그렸다. <리젤·1만원>



▲기억의 끈=재능 가정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동화책이다. 주인공 로라에게는 기억의 끈이 있다.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로라 각각의 추억이 담긴 단추들을 엮어 만든 것이다. 새엄마를 받아들여야 하는 로라의 이야기를 통해 아픔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아이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사계절·8천800원>



▲우리 집에 왜 왔니=동물원에서 탈출한 ‘원뿔’ (호주에서는 애완용으로 키우는 동물)과 친진난만한 소년 다비드의 우정을 통해 동물과 사람의 우정, 삶과 죽음, 가족간의 이해를 성찰하도록 이끄는 동화. 대화가 줄어 가는 현대가족사회에 소통의 중요성과 믿음의 소중함을 되새겨 준다. <꿈터·8천500원>



▲즐거운 명절 이야기=국보와 보물, 직업, 관혼상제 등 12가지 테마로 나눠 독특한 문화를 일컫는 우리 조상들의 문화를 탐구한 ‘소중한 우리 문화 지식여행’ 시리즈 5번째 권. ‘명절’에 얽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그림과 만화·사진으로 우리 조상들이 치러온 24절기와 함께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현문미디어·1만원>

▲도도의 물고기=‘공룡이 없다고’ ‘파란 토끼가 있다고’ 등 동물을 다룬 동화를 즐겨 쓰는 작가 하나 요한센의 그림 동화책. 꼬마 도도가 생일선물로 받은 물고기와 나누는 특별한 우정이야기를 그렸다. <현문미디어·7천500원>

‘천재 앵무새’ 알렉스가 ‘새대가리’라고?

알렉스와 나

이렌느 페퍼버그 지음



지난해 5세 아동과 맞먹는 지능을 가진 ‘천재 앵무새’ 알렉스가 죽자 영국 가디언지는 ‘미국은 상종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새 한 마리가 죽었는데 미국 전체가 슬픔에 빠졌다는 소식을 비호있게 보도했다. 조류의 지능에 대한 그동안의 편견을 깬다는 점에서 알렉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버드대학에서 앵무새의 지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렌느 페퍼버그 교수의 ‘알렉스와 나’는 천재 앵무새에 대한 진솔한 기록이다. 알렉스는 페퍼버그 교수의 집중 교육을 통해 100여 개의 영어 단어를 배웠다. 알렉스는 50개 정도의 사물을 식별하고 6가지 셀 수 있으며 일곱 가지 색깔을 구별할 줄 알았다. 유아 2세 수준의 감정 표현력과 5세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TV와 신문 등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속된 말로 ‘새대가리’라는 표현이 있듯이 영어에서도 ‘bird brain (새의 뇌)’이란 표현은 ‘바보’를 뜻한다.) 알렉스는 조류도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이런 고정관념을 깬다.

너적지 못한 집안 출신의 수재였던 저자는 돈을 아끼려고 인스턴트 커피와 삶은 달걀로 끼니를 때우며 하버드대 화학과에서 여학생으로 공부했다.

침팬지의 수화 능력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아 필생의 연구 주제를 당시로서는 낯설었던 동물 인지과학으로 잡았다. 무게 500g에 머치는 25cm인 앵무새 알렉스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이 여성 과학자는 결국 그 앵무새와 영혼의 친구가 된다.

어느 날 우연히 애완동물 가게에서 알렉스를 만난 저자는 수천 번이 넘는 반복 학습을 통해 알렉스에게 단어를 가르쳤다.

그녀는 앵무새가 단지 소리를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노력했다. 수백 번 같은 훈련을 반복하고, 확실한 사실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려 했다.

그녀는 “나는 처음으로 ‘에이 에이’라는 소리를 낸 대 해 상으로 종이를 썼고, 알렉스는 한동안 그 종이를 행복하게 씹었다”면서 “알렉스가 우리에게 준 가장 위대한 교훈은 동물의 지적 능력이 대다수 행동주의 과학자들이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간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동물 인지과학을 입증하는 일종의 보고서지만 인간과 동물이 교감을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알렉스가 죽기 전날 밤에도 여느 때처럼 그녀에게 “내일 봐요, 사랑해요(See you tomorrow, I love you)”라는 말을 남긴 일화 등은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를 보는 듯 하다. <꾸리에·1만3천원>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인간과 교감을 나누는 ‘천재 앵무새’ 알렉스.

통계란, 항상 믿어선 안 된다

벌거벗은 통계

발터 크래머 지음



소비자 물가 상승을 생산자 물가의 9배, 실업자 100만 시대, 가차지 시장 점유율 30%대 첫 돌과, 광주산업생산지수 하락... 이런 낱말이 있는 이런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까닭은 그것이 숫자와 통계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일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 도르트문트대 통계학과 발터 크래머 교수는 이런 믿음에 의문을 제기한다. 결론은 물론 “항상 믿어선 안 된다”이다. 책은 실수와 오류, 혹은 약역적인 조작에 의해 우리가 매일 접하는 통계가 얼마나 다른 얼굴을 할 수 있음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국민총생산이다. ‘한 나라의 모든 경제단위들의 총생산’이라는 정의가 무척 애매해, 정비소에 가지 않고 직접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옆집 사람에게 1천원을 주고 심부름을 시키는 수많은 경제 행위는 은연중 배제되어 사라질 수 있다.

뉴욕에서는 센트럴파크보다 침실과 부엌에서 살해당한 사람이 더 많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서 나온 통계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공민보다 더 위험한 집’이라며 치안당국을 탄압하던 어떻게 될까?

책은 숫자와 사실, 그리고 진실과 대면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을 일깨운다. 숫자의 난세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통계 교양서의 고전이다. <이은·1만2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여행에서 쓰는 돈, 안 아깝게

희망을 여행하다

임영신·이혜영 지음



새로운 개념의 여행 가이드북이 나왔다. 여행에서 만나는 이들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고, 여행에서 쓰는 돈으로 그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그곳의 자연을 지켜주는 여행인 이른바 ‘공정여행’(Fair Travel)에 대한 첫 번째 가이드북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이들의 네트워크인 이매진피스(IMAGINE PEACE)의 임영신·이혜영씨가 엮은 ‘희망을 여행하다’는 저자들이 인도, 네팔, 태버트 등 아시아 여러 나라를 직접 여행하면서 인권, 빈곤, 정치, 문화, 경제, 환경 등에 대해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일어난 이야기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책은 히말라야 포터를 돕는 여행, 호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여행, 자유와 정의를 위한 여행, 숲을 지키는 여행, 동물을 돕는 여행 같은 공정여행의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특별한 선물도 들어있다. 흥미진진한 여행의 역사와 대안적 여행의 역사, 여행에서 돌아온 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 박가와 최주부부의 공정여행 세계일주 프로젝트, 세계 대안여행가들의 인터뷰 등이 그것. 또 책은 ‘지구를 돕는 여행자가 되자’ ‘다른 이의 인권을 존중하자’ ‘성매매를 하지 말자’ 등 공정여행자가 되는 10가지 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시우·1만6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보약이 되는 헤세의 명문장들

헤세의 인생 외 2권

플커 미헬스 지음



60여 개 언어로 번역되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독일의 문호 헤르만 헤세(1877~1962).

사춘기 시절 동고래의 같은 작가로 우리에게 친숙한 헤세의 글 중 삶의 중요한 세 가지 주제인 인생, 사랑, 예술분야의 명문장만을 엄선해 엮은 책이 나왔다.

독일 주어컴프 출판사의 편집자로 수십 년간 헤세 문학을 연구한 플커 미헬스가 엮은 ‘헤세의 인생’, ‘헤세의 사랑’, ‘헤세의 예술’.

책은 헤세의 시와 소설 같은 본격 문학작품은 물론 에세이, 신문 기고문, 아들과 연인, 친구에게 보냈던 수많은 편지와 메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헤세 문학을 더욱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또 로망 폴랑, 앙드레 지드, 알버트 슈바이처, C.G. 융 등 당대의 유명인과 교류하며 남긴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책에는 인생과 인간, 나이들 등에 대해 평소 헤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예술가가 바라는 것은 청진기 아니라, 그의 시도가 얼마나 성공했는가에 상관없이 자신이 추구한 바를 이해해 주는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에선 예술가로서 헤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책·각 권 9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Includes contact info (0621364-8700), a large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and a list of agents at the bottom.